

필름에 대한 옹호

— 여전히 쓸 만한 필름 카메라 —

이상엽 / 다큐멘터리 사진가

얼마 전까지 만해도 카메라 쓸 일이 있으면 필름을 사러갔지만 요즘은 CF카드를 사러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디지털 카메라가 시장을 장악하기까지 채 5~6년 정도 밖에는 걸리지 않은 듯하다. 디지털이나 필름이나를 가지고 논쟁하던 것도 참 새삼스럽다. 이제 프로 사진가든 아마추어 사진가든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을 듯하다.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대형자본의 마케팅은 우리의 세상 보는 방법까지도 바꿔놓은 것이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코닥 트리아-X

필름이나? CCD나?

“그럼 당신은 무얼 쓰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람들은 “프로사진가는 당연히 필름을 사용”하겠거니, 또는 “작품은 여전히 필름으로 하지 않나?”고 한다. 하지만 나 역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다. 작업 분량의 약 70% 정도 일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한쪽 어깨에는 필름 카메라가 들려있다. 요즘 연재하는 네이버의 인터넷 포토에세이나 블로그는 말할 것도 없고 신문이나 잡지의 인쇄용 사진까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파일을 이용하면서, 굳이 필름을 사용해 현상과 인화라는 귀찮은 과정을 거치는 필름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의 화질이 아직은 필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기술적인 한계에 있다. 화소수가 2천

만 화소를 넘어가고 있지만 중형필름의 해상도에 비하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나 1미터 가까운 대형 프린트를 보여줘야 하는 요즘의 사진계의 풍토로 볼 때도 해상도 문제는 여전히 디지털 카메라의 남겨진 숙제다. 게다가 디지털 사진은 여전히 현실에 가깝다기보다 색상과 입체감에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필름의 맛을 내기 위한 특정 필름 ‘모드’가 장착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더욱 진보된 기술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가 재현했던 사진 이미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조만간 넘어설 것이다. 하지만 그런 때가 와도 절대 풀리지 않을 숙제가 있다. 그것은 피사체를 대하는 사진가의 태도이다. 필름 카메라는 하루 종일 열심히 찍어도 10롤을 넘지 못한다. 컷 수로 360컷! 디지털 카메라로는 한 시간 작업량도 안 된다.



- ①
- ②
- ③

① ② ③중국 산둥성 칭다오 코닥 트라이-X

그리 보면 우리는 필름 카메라 시대에 비용의 노예였든지,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이미지를 남발하고 있던지 둘 중 하나는 진실일 것이다.

여전히 필름 카메라가 존재하는 이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필름 카메라는 한 컷 한 컷 넘어 갈 때 마다 빛을 철저히 읽고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피사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 장을 찍는다. 이런 상황은 사진에 대한 사진가의 자세를 아주 진지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하여 필름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 조금씩 이루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느림’으로 완성된다”는 교훈을 준다. 저명한 평론가이자 작가였던 수전 손택은 카메라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카메라가 정밀해지고 자동화되며 정확해질수록, 사진가는

스스로를 무장해제 시키거나 자신은 사실생온갖 카메라 장비로 무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충동에 빠지게 되며, 근대 이전의 카메라 기술이 낳은 제약에 스스로 복종하고 싶어 한다. 훨씬 투박하고 성능도 덜한 기계가 훨씬 흥미롭고 표현력도 풍부한 결과를 가져오고, 창조적인 우발성이 일어날 여지를 더 많이 남겨준다고 믿으며 말이다.”

지금 카메라 중고 시장에 가보면 예전에 그리도 비쌌던 소원도의 명당자리를 디지털 카메라에 내주고 뒷켄에서 조용히 먼지를 쓰고 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카메라가 그리 쉽게 사라지겠는가? 디지털 카메라와 동급의 성능을 지닌 필름 카메라는 이제 가격이 1/5 밖에는 안 된다. 디지털 카메라로는 필름 값을 아낀다지만 폭락한 필름 카메라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필름을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떨까?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